

'배드민턴 성지' 전주 명성 잇는다

전주시 배드민턴부 창단 스포츠 친화 도시로 전진 단계 종목별 리그 목표

스포츠를 통해 전주를 전국에 홍보할 '전주시 배드민턴부'가 새 역사의 첫발을 내딛었다.

이로써 전주시는 태권도와 수영, 사이클에 이어 네 번째 직강운동경기부를 운영하면서 스포츠 친화 도시로 명성을 한 발 전진하게 됐다.

전주시는 13일 국립유형유산원 어울마루 3층 국제회의장에서 '전주시청 직강운동경기부 배드민턴부'의 창단식을 갖고 배드민턴의 저변 확대 및 스포츠 발전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창단식에는 배드민턴 원로와 지도자,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첫발을 내딛는 선수와 감독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원했다.

또 김인태 부시장, 시의원 등을 비롯해 배드민턴과 관련된 클럽회원, 학생팀 감독, 실업팀 감독, 초·중·고·대연맹 관계자 등 수많은 체육인과 정치·행정·축하 속에 창단식이 거행됐다.

많은 체육인의 축하 속에서 시작된 창단식은 행사장 분위기를 달군 전주 시립국악단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창단과정 소개, 주요 내빈의 축사 등 다채롭게 추진됐다.

배드민턴팀 창단을 기념해 전주 지역 각종 단체가 백미 100여 포를 기부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의 뜻을 전했다. 기부된 백미는 원광모자원을 통해 지역 내 보육원으로 배포돼 소외된



13일 국립유형유산원 어울마루 3층 국제회의장에서 '전주시청 직강운동경기부 배드민턴부'의 창단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들을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앞으로 전주시청 배드민턴팀은 전 국가대표 코치를 역임했던 김용현 감독을 필두로 한요셉·이현민·하동훈·유경준·박성찬·이원준·명승현 선수가 전주시를 내걸고 활동하게 된다.

영입된 선수들은 전국체전과 전국종별배드민턴대회 등에서 다수 입상 경력이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다. 특히 주장을 맡는 한요셉 선수는 오는 12월 국가대표선발전에 출전 예정으로 탁월한 기량을 갖춘 실력과 선수로 평가 받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전주시를 대표해 국내 각종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며, 첫 출전 대회로 내년 3월 개최되는

춘계 종목별 리그 대회를 목표로 삼고 있다.

창단식에서 김용현 감독은 "전주시 배드민턴팀 창단을 통해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주시를 배드민턴 강호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김 감독은 "지역 인재 발굴 및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수 선수들이 배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배드민턴실업팀이 창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면서 "전주시 직강운동경기부 네 번째 창단팀으로서 스포츠 도시 위상 강화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장애인 육상 전진제 체육발전유공 포상

지난 12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 그랜드 볼룸홀에서 진행된 '2024 체육발전유공 및 제62회 대한민국체육상 정부포상 전수식(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진안군 전진제 선수가 맹호장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올해 62회를 맞이한 대한민국체육상은 대한민국 체육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게 최고훈격인 청룡장(1등급)부터 기린장(5등급)까지 총 5개 훈장이 수여되고 있으며 이번에 전진제 선수가 수상한 맹호장은 2등급에 해당된다.

대한민국 장애인 육상을 대표하는 전진제 선수는 전북장애인체육회 소속으로 진안군 진안을 반월리에서 거주 중으로 여자 장애인 육상 종목의 전설적인 선수이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 200m 은메달을 비롯해 2023년 항저우 아시안 패러게임 100m와 200m 두 종목 은메달 등 각종 세계대회에서 많은 메달을 획득했으며 5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지난 달 경상남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44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도 여자 100m, 200m, 400m 종목에서 3관왕을 차지해 여전히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장애인 육상 선수를 증명했다.

김제, 전북역전마라톤 6위 입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육상연맹에서 주관한 제36회 전북 역전마라톤 대회에서 6위에 입상하는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동동안 열린 이번 전북 역전마라톤대회는 전주 ~ 군산(50.2km), 순창 ~ 전주 (69.8km) 등 총 120km 구간을 도내 각 시·군에서 12명 이내의 선수들이 출전해 구간별 계승형태로 치뤄졌으며, 엘리트육상선수와 일반마라톤동호인들이 함께 참가하는 권위 있는 대회다.

김제시는 지난 제26회 대회 당시 5위라는 최고 성적을 거둔 이후 제34회 대회에서 9위에 머무르는 등 단체 성적에서 추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했지만, 이번 대회에서 종합 6위와 감투상(김제 김승관)을 수상했다.

/김제=곽도태 기자

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 전북체육회 행정사무감사

"전북종합사격장 검색했더니, 성인몰 연결"

박정규 도의원, "즉각 시정·재발방지책 마련해야"

도민의 체육진흥을 위해 운영 중인 전북종합사격장이 구글 검색 시 성인몰 사이트와 연결되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임실)은 13일 제 415회 정례회 전북자치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 위원장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모바일로 구글에서 '전북종합사격장'을 검색할 경우 함께 표시되는 '전라북도종합사격장' 링크를 클릭하면 성인몰 사이트로 직접 연결된다. PC로 검색 시에는 '접근할 수 없는 사이트입니다'라는 음란물 차단 화면이 표시된다.

박 의원은 "도민들이 사격장을 검색



하다 한 번의 잘못된 클릭으로 불법 성인사이트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청소년들도 이용하는 공공 체육시설의 홈페이지가 이처럼 부적절한 콘텐츠와 연계돼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위탁기관인 전북자치도가 한번도 홈페이지를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외부 업체에 홈페이지 관리를 맡기고도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체육행정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청소년을 포함한 도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공공체육시설이 성인 콘텐츠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북자치도에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전북종합사격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에 따라 임실군이 수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다. /이만호 기자

"환경오염 방지 위해 친환경 상패 도입을"

이명연 도의원, 전북체육회 행정사무감사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이 13일 열린 제415회 정례회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이하 '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체육회의 친환경 상패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체육회와 기맹단체가 제작한 상패는 총 4,462개, 제작비용은 약 9,3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2년 1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



정했다. 비록 도체육회는 해당 조례가 규정한 공공기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매년 상당한 도비를 지원받는 단체라는 점에서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매년 1억 원 가까운 예산이 상패 제작에 투입되는 만큼, 도체육회가 친환경 상패 제작에 앞장선다면 조례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도체육회뿐만 아니라 전북장애인체육회도 친환경 상패 제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가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체육회와 의지를 갖고 기맹단체들과 함께 친환경 상패를 제작한다면, 자원 낭비 방지와 환경보호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만호 기자

본 공연은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재단 2024년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소리꽃피다

이대혁 | 베이스

이윤정 | 피아노

강지수 | 바이올린

김성민 | 첼로

이상욱 | 기타

정효준 | 디제이

심재민 | 해금

이정인 | 소리

2024. 11. 22(금)

7:30pm

문화공간 이름 ART SPACE

티켓 | 전석 10,000원

예약 | 소리꽃피다 검색

문의 | 카카오톡 "문화공간이름"

☎ 063. 223. 5323

주최·주관 | 문화재단

후원 | JKT 전북특별자치도문화재단 전주매일신문

'그간 갈고닦은 실력 발휘'

태권도진흥재단, '2024 희망나눔 캠프' 개최

구미 장애인 단체·담양 어르신 단체 등 참가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은 지역적·사회적 요인 등 태권도 수련 기회를 갖기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 등의 태권도 수련 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한 '2024 태권도 희망나눔 교실' 참가 단체 중 우수 단체 2곳을 선정, 태권도 원으로 초청하는 '2024 태권도 희망나눔 캠프'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수단체는 태권도 희망나눔 교실 사업 추진 시 교육 이수 실적과 운영에 대한 성실도, 참여율 등과 두 차례의 현장점검 등 다양한 평가를 거쳐 경북 구미시 '다봉주안보호센터'와 전남 담양군에 위치한 '담양군향촌노인종합복지관'이 선정되었다.

13일에는 다봉주안보호센터에서 35명이 참가했고, 담양군향촌노인종합복지관은 21일과 22일 1박 2일 일정으로 복지관 어르신 37명이 함께한 가운데 태권도 수련 결과를 뽐낼 수 있는 캠프를 추진한다. 캠프에서는 태권힐링체조와 태권힐링테라피 등의 태권도 수련을 비롯해 국립태권도박물관 견학, 태권도원 상설공연 관람 등 태권도 문화를 즐기고 가을 낭만 가득한 태권도원 자연도 느낄 예정이다.

다봉주안보호센터 박현주 센터장은 "올해 총 20회기의 태권도 교실을 진행하면서 태권도복과 사범님 등 교실 운영 관련 다양한 지원이 있다 보니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물론이고, 보호센터에서도 정말 만족스러웠다"라며 "태권도 교실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 활동 증가와 함께 몸과 마음 수련 등 건강한 삶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태권도진흥재단 김중현 이사장은 "태권도 희망나눔 교실 사업은 태권도진흥재단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태권도 공익사업으로 누구든지 어디에서든 태권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라며 "이번에 태권도원을 찾는 어르신들과 장애인들께서 국가 태권도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가을의 낭만이 가득한 태권도원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